상업계고 학생 실력 겨루기

전북상업경진대회 개최… 회계·창업실무 등 10개 종목으로 치러져

도내 상업계고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냈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제20회 전북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상업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다.

이에 올해는 도내 10개 학교에서 2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경진종목은 회계실무, 창업실무, 사무행정, 전자상거래실무, 비즈니스영어, ERP, 금융실무, 호텔식음료서비스실무(조주), 세무실무, 취업설계프레젠테이션 등 10개 종목이다. 또 경연종목은 창업 동아리 엑스포, 경제골든벨 2개 종목으로 치러졌다.

한편 전북상업경진대회 금·은·동 입상자는 오는 9월 14~16일 열리는 제13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 전북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지역의 신산업과 연계해 상업계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재구조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회가 상업계고 학생들에게 참여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미래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5일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제20회 전북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올해 학과 창립 50주년을 맞은 전북대학교 행정학과가 지난 주말 진수당 가인홀에서 기념식을 갖고 새 도약을 모색했다.

새로운 미래 준비하는 소중한 계기

전북대 행정학과 창립 50주년 기념식

김광휘 동문회장 '인문학적 성찰 기반 사회과학교육' 특강

김영근 명예교수, 지난 50년 동안 학과가 걸어온 길 소개

행정학과 교수진 1000만원 발전기금 전달식도 병행

올해 학과 창립 50주년을 맞은 전북대학교 행정학과가 지난 주말 진수당 가인홀에서 기념식을 갖고 새 도약을 모색했다.

이에 따르면 행정학과 50주년 행사추진위원회(위원장 안국찬 대외협력부총장)와 전북대 행정학과(학과장 조기웅), 행정학과 총동문회(회장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국장)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200여 명의 학생 및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주상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김광휘 동문회장(행정학과 85학번)이 '인문학적 성찰에 기반한 사회과학교육'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고, 이어 김영근 명예교수는 지난 50년 행정학과가 걸어온 길을 소개했다.

또한 정헌율 익산시장과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참석해 현장에서, 그리고 양오봉 총장과 김관영 도지사, 서거석 교육감, 최훈식 장수군수 등은 영상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신무섭·김영금 명예교수에게 50주년 기념 감사패가 전달됐고, 학과 발전에 기여한 김광휘 총동문회장과 강신구 총동문회 총무에게 각각 공로패가 수여됐다.

이어진 2부 만찬에서는 강신구 총동문회 총무((주)뉴앤올드홀딩스 대표)의 사회로 50주년을 축하하는 공연과 경품행사 등이 진행돼 선후배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50주년을 기념해 행정학과 교수진이 십시일반 마련한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안국찬 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선·후배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행정학과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계기"라며 "우리 행정학과가 지난 50년의 발걸음을 초석 삼아 새로운 100년, 더욱 새로운 500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학생 해외 문화체험

인솔교사 워크숍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5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학생 해외 문화체험 인솔교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소속 학생들이 해외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 5개국에 초·중·고 학생 500명(국가별 100명씩)의 해외 문화체험 참가자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학교급 학생들이 해외에서 안전하고 내실있는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을 인솔·지도하기 위한 인솔교사 50명도 선발했다.

인솔교사는 해외 문화체험 기간 동안 △학생 안전지도 △비행기 승하선 등에 필요한 출입국 지도 △역사·문화교육 △학생 해외 문화체험 일정 △사후 관리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방문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사전교육, 체험활동, 사후 활동 등이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학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또 여러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상황별 응급조치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들이 해외연수를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것과 함께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인솔교사들도 유의사항과 안전 매뉴얼 등을 숙지해 안전한 해외 문화체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7월중 하계 인솔교사 워크숍, 10월중에는 동계 인솔교사 워크숍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지난 24일 송철규 전북대학교 LINC 3.0 사업단장 겸 연구부총장과 최경식 남원시장, 하버드 의대 피터 강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의 천연 바이오 소재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연구와 사업화 협약식을 가졌다.

남원 천연물 소재 산업화 나서

전북대 LINC 3.0 사업단, 남원시 등과 협약 체결

바이오사업 브랜드 활성화·인력 양성 등 협력

전북대학교 LINC 3.0 사업단(단장 송철규)이 남원시(시장 최경식), 하버드 의대 피터 강 교수 등과 협약을 체결, 남원의 천연 바이오 소재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연구와 사업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4일 송철규 단장 겸 연구부총장과 최경식 남원시장, 하버드 의대 피터 강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 내용은 바이오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남원권역 바이오산업의 브랜드 활성화, 바이오산업 글로벌 인력양성 협력 등이다.

전북대 LINC 3.0 사업단은 전북지역의 주력 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5개의 기업협업센터(ICC)를 운영중이다. 이를 통해 지역 핵심 산업 중심의 산학공동연구와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대와 남원시, 하버드 의대의 연구 및 사업화 역량이 공동으로 투입돼 남원의 천연물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화장품, 의약품 등의 브랜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교육인권조례 인권담당관 임명 놓고 갈등

도내 인권시민단체 등 "사전 논의 않던 '장학관으로 보함' 문구 첨가… 책임자 문책해야"

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 정상 운영 위해… 추후 정원 확보시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 임용 검토"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제3조 인권담당관의 임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 인권시민단체와 전북도교육청 소속 교사·공무직·공무원 단체 연대는 2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인권 조례 시행규칙(안)을 철회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당초 교육인권조례 제정을 하면서 교육인권센터의 위상은 기존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기관에서 부교육감 직속으로 격상하고, 5급 상당의 인권옹호관을 4급 상당의 인권담당관으로 바꿔서 전북 교육인권 강화를 위한 독립성 보장이 원칙이었다"면서 "애초부터 인권담당관 자리는 장학관이나 일반직으로 배치할 수 없으며,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기로 했으나 사전 논의조차 하지 않았던 '인권담당관을 장학관으로 보한다'는 문구가 첨가됐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인권분야는 그 영역이 매우 전문적이고, 다소간의 학식과 경험이 중요한 요건인데도 불구하고 '교육경력이 있는 자'라면 누구라도 인권담당관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특정 조직의 승진 자리로 오해하도록 만들었다"며 "특히 기관의 상급자가 장학관이며, 학교 관리자가 교장인 점을 볼 때 지금도 교직원들이 당하는 인권침해 사안의 상당부분이 과장이나 학교장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본청 기준 4급 상당 이상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은 4명까지 가능한데, 이미 4명이 배정된 관계로 인권담당관을 4급 상당 개방형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장학관으로 보하고, 추후 정원 확보시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 임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담당관의 주요업무는 학교구성원 인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로서 위 2개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임용하기 위해 자격요건에 교육 경력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장은성 기자

전라북도 인권시민단체와 전북도교육청 소속 교사·공무직·공무원 단체 연대는 2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인권 조례 시행규칙(안)을 철회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전주비전대-대전과학기술대

LINC 3.0 사업단 토론회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지난 24일 대전과학기술대학교 LINC 3.0 사업단과 기업협업센터(ICC) 우수사례 공유 및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사업단의 ICC 운영 Know-How를 공유하며, 지역 산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토론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앞서 양 대학은 지난 11월 미래헬스산업의 패러다임을 주제로 공동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전주비전대 최승훈 LINC 3.0 사업단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전과학기술대학의 우수 ICC 운영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며 "이를 2차년도 사업에 반영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아갈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LINC 3.0 1차년도 연차평가 '최우수'

2차년도 41억4600만원 확보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인 3단계 산학연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LINC 3.0)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LINC 3.0 사업단은 1차년도 연가평가의 성과지표를 모두 충족했으며, '고부가가치 창출 기업가형 대학'이라는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또한 산업체 수요맞춤형 교육과정과 신산업 기반의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융합전공 활성화, 모듈형 다전공제 운영 등 산학연 연계 교육을 강화했다.

특히 대학의 특성화 분야인 '바이오헬스·수소에너지·스마트관광'의 기업협업센터(ICC)를 설치하고, 가족회사 All-set 지원과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및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도운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이번 평가를 통해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2차년도 사업비 41억 4,600만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신산업 융복합 교육과정과 지자체 연계협력, 가족회사 수요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학생과 기업, 지자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공유협업 체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남천현 총장은 "LINC 3.0 사업단을 중심으로 대학 구성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역량을 집중한 결과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교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기본역량 강화와 전략적 특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LINC 3.0 사업단장은 "지역 상생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지역산업과 상생발전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대학의 선도모델을 그려내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올 창업중심대학 도약기 창업기업 선정

전북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메디앤리서치·엠에스이엔지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메디앤리서치와 ㈜엠에스이엔지가 2023년 창업중심대학 도약기 창업기업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창업 아이템, 아이디어,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도약기(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사업화 자금 및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3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먼저, 메디앤리서치는 의료용 필러 및 리프팅 실, 화장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태국 수출 250만 불을 시작으로 베트남, 영국 등에 진출하는 등의 꾸준한 수출 성과를 내고 있다.

이어, 엠에스이엔지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건설기계 외장품 제작을 기반으로 법인 설립 후 지난해 기업부설연구소로 군산 강소특구내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3건을 취득하고 매출 76억, 고용창출 13명 등 성과를 달성했다.

권대규 창업보육센터장은 "다년간 구축해 온 전북대의 창업 지원 인프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입주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업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